01 교회소식
선과 사랑,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지난 36년간 놀라운 권능의 사역과 함께 전 세계에 수준 높은 기독문화를 선보이며 국위선양에 힘써 왔다.

02 생명의 말씀
온 영의 차원
범사에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가 온 영의 열매이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나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기관장 교육 말씀을 통해 온영(살전 5:23)의 증거가 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 행복합니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신기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인도 모티 집사와 뇌경색을 흔적 없이 치료받은 이금성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44호 2018년 6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만민'을 알리다!

'만민 페스티벌', 세계 곳곳에 한국의 위상 높인 사역 소개

지난 6월 16일(토)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만민 페스티벌'이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공원 사거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하는 만민, 주님의 사랑을 선과 행함으로 실천하는 만민, 성결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만민, 권능의 역사를 전하자 만민!'이라는 주제로 오직 성경대로 가르치며 순종하여 행하는 사랑과 권능의 사역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만민 페스티벌'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의도공원 상공 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매우 크고 선명한 원형 무지개가 떠 있었다. 더욱이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날씨 속에 신선한 바람까지 불어 참석자들은 시종 성령 충만한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사례들을 담은 간증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 '미라클'의 현악 4중주 연주가 있은 뒤 솔리스트 주성결 집사의 찬양, '파워워십팀'의 화려한 부채춤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매일 밤 다니엘철야를 통해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국가의 발전과 정치경제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행사에 VIP로 초청받아 공연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매년 수차례 각종 교회 행사 때마다 해외 인사들이 만민중앙교회에 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국위선양에도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만민중앙교회가 구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것과, 이로 인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얻게 된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소개했다. 특별히 최근 생활이 어려운 연로한 성도들 220여 명에게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한 소식을 전했다. 이후 '파워워십팀'의 우아한 워십과 '금관앙상블'의 웅장한 연주, 이어진 '파워워십팀'의 'JESUS' 찬양에 맞춘 힘찬 워십에 성도들은 함께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

마지막 순서인 회중찬양 시간에는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인도로 '천상의소리선교단'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모두 일어나 찬양했다. 손에 손을 잡고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행사를 지켜 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껏 많은 집회를 보았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모범적인 집회는 처음입니다. 자체적으로 교통 및 안전 봉사 등 체계적으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집회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온 영의 차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열매로 나온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 맞춰 온전히 행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며 지금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지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가 되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온 영입니다(살전 5:23).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가 바로 온 영의 열매로 나온 참 자녀이지요. 이러한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온 영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100 %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면 온 영의 증거가 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영의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최선을 다해 이루어 드리지요.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지요.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향이 풍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며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존재 자체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고, 단 한 순간도 그 뜻밖으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느끼기 위해 기도를 쌓아나갔습니다.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생각까지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었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에녹이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산 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창 5:21~24 ; 히 11:5).

영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지만, 온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기쁘시게 해 드리는 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와 마음이 하나 되어야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준다면 그것은 자기만족에 그치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해 줄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 하나 된 관계이지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하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온 영의 사람은 단순히 아는 만큼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히 11:17~19).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멘." 할 때 중심에서 우러난 진실함과 정성이 담긴 참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미 죄악이 심히 관영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근본 마음을 알았지요. '죄악이 관영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해도 어쩔 수 없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만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길 조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렸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돔 성에 합당한 숫자의 의인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공의에 맞게 구함으로 마침내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물론 소돔 성은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겸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끝까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헤아려 그 마음에 흡족하게 구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온 영의 차원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맞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버지 하나님의 선'입니다.

영의 사람은 선과 사랑과 진리의 지식을 채워나가는 만큼 온 영에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온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과 행함, 표정 하나에서도 선한 향이 진하게 풍겨나지요.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열매인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참마음을 이루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온 영의 차원에 들어온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 영으로 들어와도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100 %에 가까워야 합니다."

– 기관장 교육 '온 영' 중에서

단순히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며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섬깁니다. 남의 허물을 전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 주지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를 봐도 불편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선으로 감동을 줍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 나오지요. 그런데 사람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가난하다고 무조건 구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술이나 도박에 돈을 탕진하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오히려 그를 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같이 연단을 겪지요.

온 영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선과 육적인 선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며, 선과 악을 진리로 분별하여 선으로 악을 분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된 선이기 때문에 상대의 영혼을 위해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사랑 자체이시며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구약의 율법만을 보면 참으로 엄위하신 모습이지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재고 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죄로 인한 구원의 문제가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 영의 사람들이 때로는 매정해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죽인 것도 그들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악한 영에게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었지요. 더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우상 숭배라는 가증한 죄에 심히 물들었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했기에 단호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영적인 선으로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심히 불량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들을 엄히 징계하고 내쫓아서라도 악행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말로만 타일렀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진노하셨고, 그들이 비참하게 죽는 등 가문 전체에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삼상 2:29~34).

가령,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선이요, 돌이켰을 때는 기억지도 말고 덮어주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하셨지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마 18:15~17).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이 주의 종이나 교회 직원이라 교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그의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물론 먼저는 권면하여 철저히 회개시켜야 하지만, 그 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며, 악을 덮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분쇄시키는 권세 있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충성'입니다.

영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을 감당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변개함 없이 충성합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을 맡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하지요. 그런데 온 영의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이뤄드리기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은 뒤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능통했으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 영적인 충성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말씀 무장과 기도, 수많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물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코 '지친다, 힘들다.' 하지 않았고,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 표류할 때도, 심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과 감사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도 깨어나자마자 쉬지 않고 다음 사역지를 향해 떠났지요. 그 마음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을 때, "생명을 다하리라." 할 정도로 열정이 뜨겁다가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연단에도 핑계대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잠 24:10).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망을 받거나 열정적으로 노력해도 원하던 열매를 얻지 못하면 낙심해서 물러서며 더 이상 노력하기를 포기하지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면 결코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겪는다 해도 상관없지요. 윗분에게 책망을 받거나 혹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예전에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 내는 것이 충성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으로는 차마 감당 못할 험한 일이라도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온 영의 사람은 자기 방식, 취향, 성품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마음과 뜻에 맞춰 충성합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으로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 영의 차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 행할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참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선을 이루며 그 뜻에 맞춰 충성함으로 온 영의 열매로 나와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섭리를 이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모티 집사 (39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제 꿈은 고향인 우타프라데시 주 고락푸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가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델리만민교회 개척 당시, 담임 김상휘 목사님이 첫 번째로 등록한 제게 주안에서 심어주신 멋진 꿈이지요.

안타깝게도 제 고향은 델리와 1,000 Km 정도 떨어진 농촌 오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씀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두려움이 많았지요.

감사하게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심한 요통을 치료받은 후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도하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리드할 수 있게 되었지요.

◆

2018년 5월,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는 결혼잔치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축하하고자 친척집을 찾아온 사람들이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참임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 주며, 권능의 역사가 담긴 영상을 보여 준 뒤 손수건 기도를 해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손수건 기도를 받고 왼쪽 편마비가 치료된 '시마'

▲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나 기도받은 후 걷게 된 '양쿠쉬'

시마(35세, 사진 1)라는 여성은 2년 전부터 왼쪽 편마비로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음성파일을 틀어놓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더니 마비되어 올릴 수 없었던 왼팔을 번쩍 올리는 것입니다. 이후 두 번 더 손수건 기도를 받자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양쿠쉬(3세, 사진 2)라는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고, 걸을 수도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입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5일이 지난 후에는 벽이나 어떤 물체를 의지해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가슴, 눈, 온몸 등의 각종 통증이 사라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할렐루야!

◆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향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그곳에 교회는 없지만 GCN 힌디어 방송 덕분에 매주 함께 모여 만민중앙교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뇌경색을 흔적도 없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금성 집사 (61세, 중국 1교구)

2018년 1월 2일(화) 오후 3시 30분경부터 머리가 무겁고 속까지 메스꺼우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찍 퇴근하여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말았지요.

◆

얼마 후 허리춤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계단 위에 쓰러져 20분 정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오지 않아 겨우 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구역장님의 전화를 받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숨쉬기가 힘들고 말도 나오지 않으며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 교구장님과 부교구장님, 일꾼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대신 회개기도를 해 주신 뒤 교구장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을 하려는데 돼지 형상 같은 것이 제 입을 꽉 물고 있는 것이 보였고,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지요.

감사하게도 교구장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아 주는 느낌이 들면서 제 입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이내 온몸에 힘이 오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져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둘러보니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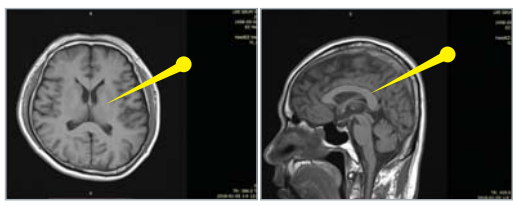
3일 뒤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의사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이전의 뇌경색과 뇌출혈의 흔적도 없어졌네요." 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지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2년 전 뇌경색에 뇌출혈까지 와서 약을 달고 살았지만 항상 머릿속이 묵직했고 뒷골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뒤 머리가 항상 맑고 시원하니 날아다닐 것만 같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MRI 촬영 (기도받은 뒤)

● 과거의 뇌경색과 뇌출혈 된 곳이 개통되고 흡수되어 지금은 보이지 않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